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와 변화 전망

김 남 식*

目 次

1. 머리말
2. 지도사상 및 이론
3. 권력구조의 특징
4.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5. 변화전망

머 리 말

소련·동구사회주의는 구조적으로 붕괴되었으며, 중국사회주의도 크게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주의도 불가피하게 변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북한사회주의는 소련·동구사회주의의 붕괴에서 그 교훈을 찾아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중국식 사회주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그에 기초하여 형성된 권력구조 및 경제건설의 기본원칙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북한사회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방향성을 단기적 차원에서 전망해 본 것이다.

1. 지도사상 및 이론

1)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

* 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해방후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수용하여 조선로동당을 창건했으며, 그의 영도하에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특히 소련에서 흐루시췌프 등장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수정을 가하게 되었으며, 중.소의 이념 분쟁의 격화는 사상분쟁에서 큰 혼란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모택동사상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새로운 사상이론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당의 지도사상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걷게 된다.

4차 당대회(1961.9)까지만 하더라도 마르크스.레닌주의만이 당의 지도사상이라는 것을 규제했는데, 6차 당대회(1980.10)에 와서는 "조선로동당은 오직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라고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상만을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북한은 주체사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도되고 있으며, 그에 의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의 철학과는 그 원리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철학의 원리라함은 세계관 형성의 기초이며, 세계관을 규제하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철학의 원리를 무엇으로 설정했는가에 따라 세계관은 달리 형성되기 마련이다.

마르크스는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에서 1차성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것을 철학의 기본원리로 삼아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철학의 원리는 세계의 시원문제가 아니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세워 그것을 철학의 기본원리로 설정했다. 따라서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주체사상은 오늘날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의 이론적 근거로 되어 있으며, 특히 김정일의 1986년 7월에 발표한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

지 문제에 대하여」담화에서는 혁명의 자주적 주체라고 하는 수령.당.인민대중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담화에서는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주체를 수령.당.인민대중으로 규정하고, 오늘날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 담화에서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인민대중의 통일체이다"라고 하여 인민대중은 수령과 당의 영도가 결합될 때만이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수령.당.인민대중의 상호관계에 대해 김정일의 담화에서는 "당의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어 당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때 영생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된다"고 규정짓고 있다.

여기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회를 고도로 발달된 하나의 자주적인 사회, 정치적 생명체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서 사람에게에는 육체적 생명과 정치적 생명이 있으며, 정치적 생명은 인간이 자연과 사회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인간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사회는 자주성이라는 정치적 생명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논리에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사회를 발달된 자주적인 사회, 정치적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만큼 거기에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개별적 인간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 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뇌수인 수령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로부터 수령과 사회성원과의 관계는 전체와 부분간의 관계이자 승

고한 동지적 관계가 되며, 수령은 인민대중의 조직적 의사의 유일한 체현자이자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지도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수령은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주체사상이라는 인간중심의 철학과 혁명사상을 창조하여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형성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즉,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권력의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방법론으로 되어 있다.

2) 환경변화에 따른 지도이론

북한에서 80년대 중국의 개방화 정책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도이론을 제시해 왔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오늘의 북한의 노선과 정책은 80년대에 이미 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들이 이론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구의 해안지역과 동북부에 걸쳐 경제특구가 조정되어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이 수용되는 환경속에서 북한에서도 이러한 경제특구에 시찰단을 보내면서 그의 실상들을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84년 9월에는 비사회주의적인 경제관리방식인 「합영법」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대서방과의 경제합작 등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환경에서 (86~88) 김일성과 김정일은 일련의 이론적인 문제들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그 몇가지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다.

중국, 소련 사회주의의 극심한 변화가 예고되던 1986년 5월의 시점에서 김일성은 「김일성 고급당학교」 창립 40주년에 즈음하여 집필한 「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강의록을 발표했다. 그리고 김일성은 북한 사회주의의 현실적인 노선과 정책면에서의 새로운 방침들을 밝히는 연설 즉,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하여" (1986. 12. 30. 최고인민회의 8기 1차회의에서의 시정연설)와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자" (1988. 9. 8. 정부수립 40주년 기념경축 보고 대회에서의 연설)를 행했다.

물론 이러한 연설내용들은 기존의 노선과 정책의 연장선에서 제시된 이론 이기는 하나 보다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게 발전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편, 김정일은 김일성이 제시한 노선과 정책을 사상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네 개의 논문 즉,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 7. 5),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1987. 9. 25),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이 세울때에 대하여」(1987. 10. 10),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1988. 5. 15)를 발표했던 것이다.

특히, 80년 10월 쿠바신문「그란마」지 사장의 질문에 대한 김정일의 답변은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노선과 정책을 집약적으로 나타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기본내용은 (1)당을 강화하고 당의 영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는 것 (2)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는 것(사상의 유일성과 영도의 유일성 보장) (3)수령. 당. 대중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는 것 (4)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책동이라는 조건에서 혁명교양과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 (5)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 것(당의 핵심역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을 잘 키우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6)당 사업체제와 방법을 옹기 세우는 것(당의 유일적 영도와 혁명적 균중노선을 옹기 결합하는 것)등 이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에서는 권력구조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보다 능동적인 대응책들이 마련되고 「우리식 사회주의 노선」을 보다 철저하게 확립하는 길에 들어섰다.

즉,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앞당겨 실시하고 90년 5월 24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제 9기 1차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국가지도기관을 선출했다. 그리하여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하는 한편 그를 중심으로 하는 영도체제와 함께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수령의 후계체제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김일성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라는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기본노선을 재천명했다. 이 시정연설에서의 정책기조를 보면 90년의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1)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인

민정권의 강화 및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추진)을 계속 강조하면서 (2)계속 혁명 (3)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의 동시점령(단, 사상적 요새점령이 선차적 과제)를 주요노선으로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상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 방침이, 물질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방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최고인민회의의 9기 1차 회의 시정연설의 내용들은 90년 10월 9일에 있었던 당 창건 45주년 기념 경축보고, 그리고 다음날의 경축연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등에서 재확인 했다.

그리고 이와 때를 같이하여 김정일은 「근로자」 90년 10월에 “조선노동당은 우리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1)당의 영도는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2)우리당을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3)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들어주고 당적 영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3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계속해서 91년 1월의 김일성 신년사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기본특성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당의 영도밑에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이며,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토대위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장 활력있는 사회입니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대한 당, 당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위대한 인민,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위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식 사회주의」를 보다 이론적으로 정식화한 것은 91년 5월 김정일의 당책임 간부들과의 「담화」에서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김정일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제하의 담화를 했는데 여기서 그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어떠한 사회주의라는 것을 이론

적으로 정식화한 것이다. 그는 이 담화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첫째,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는 것, 둘째, 거대한 우월성과 생활력을 발위하고 있다는 것, 셋째,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라는 것 등으로 설명을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담화는 오늘의 북한사회주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김정일이 자신의 사상과 노선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또한 북한사회주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명시한 것이라 하겠다.

계속해서 김정일은 92년 1월 3일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 앞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 노선」이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항목에서는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의 해체에 관해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 요인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를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둘째항목에서는 그간 북한에서 추진해온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노선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난 10월 당창건 47주년에 즈음하여 김정일은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의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사회주의의 시련기에 직면해 사회주의를 위한 새로운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옹기 총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논문집필의 목적과 함께 「사회주의 집권당 결성의 역사적 교훈」, 「주체의 혁명적 단결성의 기본 원칙」, 「혁명적 당들의 국제적 단결과 연대성」등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부분에서는 소련·동구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집권공산당이 붕괴된 것은 당 건설 및 활동과정에서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 둘째부분에서는 당 건설의 기본원칙을 주체사상에 입각한 당의 지도사상확립, 인민 대중에 뿌리를 둔 대중적 당으로 건설, 당내에서 수령의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 보장, 당의 통일단결강화, 개개인의 사상의식을 기본으로 하는 당 건설, 사상교양을 강화 하여 온 사회를 혁명사상으로 일색화, 혁명적군중노선 견지등을 제시했다. 셋째부분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이로인해 사회주의 운동을 위한 국제환경이 악화된것과 관련 종전과

같이 진영중심이 아닌 사회주의 계열의 개별정당들의 국제적 단결과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4월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기해 채택한 「평안선언」을 하나의 예로 제시 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지도사상으로서의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여 그를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굳히게 하는 한편 그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보완적 이론들을 수시로 제시해 오고 있는 것이다.

2. 권력구조의 특징

1)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

북한의 권력구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출판물에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에 대해 “수령의 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체계”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들의 수령론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수령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령의 역할에 대해서 첫째,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둘째,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며, 셋째, 정확한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그 실현으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해야 할 역할은 수령 이외에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대신할 수 없으며 오직 수령만이 그것을 수행하는 책임자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령의 역할을 개인의 역할과는 구별이 된다고 하면서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최고 체현자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유일한 대표자가 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2) 당 영도하의 권력의 중앙집중

앞서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자주적 주체로 보고 있는 수

형. 당. 대중의 삼위일체라는 논리는 북한권력에서의 당의 위치 및 그의 역할에 의해서 뒷바침 되고 있다.

이에 관해 북한의 문헌에서는 "노동당계급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영도권을 노동계급의 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수중에 넘기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다른 정당들은 노동계급이 당과 집권경쟁을 하는 정치조직이 아니라 온 사회에 대한 노동계급이 당의 영도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친선적으로 협조하는 정치조직이다.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노동계급의 당의 영도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라고 조선노동당의 영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권력구조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권력이 중앙집권이라는 것은 지방분권화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은 그간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그와 상응하게 권력의 분권화를 시도한 바 있으며 오늘날 중국의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라는 데서 비롯된 것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에 관해 북한의 문헌에서는 "인민대중의 의사를 하나로 집대성하고 집대성된 의사를 인민대중의 의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제가 보장되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권력 집중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는 사회 모든 성원들의 생활에 대해 책임지고 보살피 주어야 하는 것이 정치권력의 중요한 기능인 만큼 국가기관의 중앙집권적 권력의 집중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3) 후계체제의 완결

북한에서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80년 10월에 개최된 노동당 6차

대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는 동 대회에서 후계자로서의 당적 지위가 대내외적으로 공식화된 것이다. 그런데 1973년 당 5기 7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조직, 선전담당비서로 선출 되었으며, 다음해인 1974년 2월에 개최된 바 있는 당 중앙위원회 제 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추대된 것이다.

김정일은 이러한 당적인 지위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총체적으로 지도해 나갔으며 특히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3대혁명 소조운동을 후계체제의 구축과 결부시켜 전개한 것이다. 3대혁명 소조원들의 구성은 주로 젊은층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었으며, 사상혁명을 선행시키는 방향에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동시에 추진한 것이다. 사상혁명에서는 주로 보수주의, 관료주의를 비롯한 유교문화의 잔재등을 청산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당의 유일사상체제의 확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속도전'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주의 경쟁운동이 전개되었다. 또한 1974년에는 사회주의 건설의 추진과 함께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후계체제의 구축에서 당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각급기관들의 간부의 교체문제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이미 형성된 김정일 중심의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보다 강화하며 3대혁명을 계속 추진시키는 한편, 후계체제의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980년 10월에 개최된 바 있는 노동당 6차대회에서는 김정일이 정치위원, 당 비서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 등으로 선출되어 김정일이가 조선노동당을 실질적으로 장악 운영하며, 수령의 후계자라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6차당대회 후부터는 김정일이 지도자로서의 이미지 부상은 물론 그의 활동영역이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정일에 의한 후계체제가 이미 확고하게 수립되고 수령의 후계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1986년 5월이라고 볼 수

가 있다.

1986년 5월 31일 김일성이 김일성 고급당학교 교직원과 학생들 앞에서 '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이라는 제하의 강의를 한 바 있다. 이 강의는 김일성 고급당학교 창립 40주년과 관련하여 김일성이 동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강의하였는데, 그는 「당의 위업을 옮겨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는 후계자를 바로 내세우는 것과 함께 그의 영도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쌓고 영도체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당에서는 혁명위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라고 김정일에 의한 후계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주장하였다.

1990년 5월에 개최된 바 있는 최고인민회의 제 9기 1차회의에서는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체제와 함께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보다 확고히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제 1부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노동당뿐만 아니라 국가권력기관에 있어서도 그가 김일성 다음의 실권자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었다. 91년 12월에는 노동당 6기 1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하게 되었는데, 이는 김일성의 최고사령관직을 김정일이 그대로 이양받은 것이 되며, 따라서 김정일은 조선 인민군의 총지휘자로서 군을 직접 관장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당, 국가, 군대의 수위」에 있으면서 모든것을 총체적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1) 생산수단의 사회화

북한에서는 1958년에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주의적 소유로 전환되었다. 즉,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지금에 와서는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에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단일한 전인민적 소유를 확립하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주장되고 있다.

즉, 농촌의 협동적 소유제를 인민적 소유제로 전환할 것을 당면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제국주의 자들과 반동등

이 사적 소유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떠들면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사회적 소유를 포기하고 사적 소유로 되살릴 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사적 소유제도의 반동성은 이에 역사에 의하여 확증되었다.»고 하면서 사적 소유제도의 우월성이란 「더 많은 재부를 끌어모으기 위한 약육강식의 경쟁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다.

2) 당위원회 중심의 경제관리

북한의 공장기업소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대안의 사업체제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즉, 정책적지도, 정치적지도하에 경제활동이 전개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일꾼들은 사람과의 산업, 정치 사업을 하고 행정기술일꾼들은 경제기술사업을 한다는 관리 방식」인 것이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경제관리방식을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부합하게 개선해 낼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대안의 사업체제라는 기본적인 경제관리체제를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새로운 관리방식으로 그를 대체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대안의사업체는 김일성이 61년 12월 대안중기기계연합기업소를 방문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1년후인 62년 11월 9일 김일성이 이공장 당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안의 사업체제를 더욱 발전시킬때 대하여」란 연설을 함으로서 유일한 관리방식으로 정착되었다.

지난 11월 9일 김일성 연설 30주가되는날 평양방송논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제가 사회주의 경제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월한 사업체제라고 재강조했다.

3) 계획경제의 실시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의 주요특징의 하나로 되어 있다. 이는 시장주의 경제의 반대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다. 북한에서는 현재 3차 7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에 따라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 이론에서 계획경제는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원칙이라고 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경제협력과 원조를 미끼를 다른 나라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강요하고 경제적 침투를 감행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라고 시장경제를 적극 반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 변화전망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변화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련·동구사회주의 붕괴원인을 북한당국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금년 1월 3일 김정일 담화인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당의 총노선」에서는 붕괴원인을 외부적 용인보다도 내부적 용인에서 찾고있는것이 특징인데, 다음 세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되어 있는 인민대중에 대한 역할을 높이는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사회의 3대 구성인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과 사회주의 정권,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제도에 있어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의 역할을 거의 도외시하고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의 자연발생적인 역할을 통해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이 경제건설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가 침체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둘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기본원칙을 일관성있게 유지해 나가지 못했다는 것으로서 다원주의나 사상에서의 자유화나, 정치에서의 다당제나 등등 사회주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개혁·개편 등으로 사회주의 변질과정을 촉진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주의 나라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주성 원칙에서 상호연대를 강화해 나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소련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중앙으로 자처하면서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의 당에 대해 내정간섭, 압력등을 자행함으로써 사상적인 통일과 동지적 협조관계가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 발표된 김정일 논문인 「혁명적 당 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에서는 집권당들의 당건설과 활동에서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를 공고히 다지지 못했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첫째, 당건설이 혁명적 원칙을 포기했으며, 둘째, 당건설과 활동에서 주체를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 셋째, 사회주의 사상이 순결성을 고수하지 못했다는 것, 넷째, 영도의 계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소련·동구사회주의 붕괴원인에 대한 지적들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원리원칙을 철저히 고수해나가겠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관해 김정일 논문인 우리식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를 말살하기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회주의는 그들의 비열한 공격과 비방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전제로해서 북한의 변화전망을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정치권력의 이론적 배경으로 되어 있는 주체사상에 관한 문제이다. 소련 및 동구의 변화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지도사상을 포기하는 입장이며, 따라서 기존의 헌법에 입각한 권력구조는 자동적으로 붕괴되고 새로운 권력구조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체사상은 김정일에 의해 이론적으로 정식화 되었고 그에 의해 계속해서 보완 또는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주체사상은 앞으로 당의 유일사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 분명하다.

즉, 이데올로기의 퇴색현상은 당분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식 사회주의」의 본질적 내용이 주체사상의 구현이라고 한다면 주체사상을 떠난 북한사회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둘째, 북한의 권력은 김정일에 의해서 계속 대를 이어 계승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기본틀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소련·동구와 같이 탈이데올로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주체사상은 북한의 권

력구조 형성의 이론적 뒷받침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이 분명하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체사상을 수정 또는 포기하지 않는한 수령중심의 권력구조는 지속된다는 이야기다.

셋째, 불원간 북한은 권력구조에서 혁명 1세대인 빨치산세대가 퇴진된다는 점이다. 80년 10월에 있었던 6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의 핵심기관들에는 김일성세대인 빨치산세대가 상당수를 차지한바 있으나 1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는 불과 몇명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서국은 전원이 새로운 인물이며, 정치국에 있어서도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빨치산 세대가 거의 퇴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혁명1세대가 권력구조에서 퇴진하고 그후 세대가 장악하게 된다는 것은 권력의 성격상 큰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권력내에서의 세대교체를 지적할 수가 있다.

북한에서의 세대교체는 기존세대의 연로화로 인해 불가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김정일은 자기의 후계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담한 세대교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대혁명 소조운동은 70년대초로부터 오늘날까지 지속해오고 있는데 이는 김정일의 후계체제 구축과 밀접히 결부되면서 권력구조면에서는 세대교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구성에서는 지식층이 권력의 핵심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특히 중앙부서에서는 테크노크라트의 진출이 크게 눈에 띄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사회주의 건설이 심화되고 그 규모가 커지며 보다 전문성을 요구하게 된다고 예상할때 북한의 권력은 그에 부흥하게 개편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권력의 기본들의 변화는 당분간 예상하기 어렵다.

넷째, 권력의 분권화를 예상한다면 이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지방분권적 권

력구조로 개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특징이 권력의 중앙집중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분권화는 예상할 수가 없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경제지도위원회의 설치등 부분적인 분권화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경제규모가 커지고, 또한 지방의 경제, 교육, 문화등 그 내용이 복잡해질 경우 분권화의 추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분야에 있어서 대외협력관계가 확대될 경우 지방경제기관의 자율성이 보다 확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에서는 84년에 합영법을 발효하여 서방세계와의 합영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나진선봉지구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여 외국자본과 기업활동의 길을 열어 주었고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 발표하여 합영, 합작, 외국인 기업의 설립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외무역의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소비재 공업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모든 기업체에서 독립체산제를 실시하고 상금제를 비롯한 물질자극에 의한 노동생산성 재고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그밖에 「연합기업소」 체제의 활용등 경제관리방식의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북한경제정책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경제건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리원칙에 입각하여 수행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흔히 말하는 북한경제의 개혁, 개방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생산수단의 사회화, 계획경제의 실시, 사상혁명의 선행, 시장주의 배제등의 기본원칙을 지킨다는 테두리 안에서 북한경제의 부분적인 변화양상을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소련, 동구 또는 중국의 변화라는 외적 압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나 지금의 체제와 노선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것은 80년 10월에 있었던 6차 당대회에서 구성된 정치권력의 구조와 인물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에서 부분적으로 변화는 있으나 그를 계속 견지해

오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또한, 앞에서 김일성의 노령화에 의한 퇴진과 또한 사망의 경우 김정일에 의한 수령승계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데, 소련의 스탈린 사망과 중공의 모택동 사망 후의 경험에서와 같이, 정치적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그와 같은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70년대부터 김정일의후계체제를 서둘러 구축해 왔다는 것을 감안할 때 권력승계로 인한 정치적 혼란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정일에 의한 수령승계가 일단 이루어진 후 지금과 같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